

2009 NHERI 리포트 제57호 (2009. 6. 12)

작 성 : 신재근 수석연구원(02-6399-5937)

zegni@nonghyup.com

감 수 : 전찬익 농업정책연구실장(02-6399-5962)

cic5630@yahoo.co.kr

본 자료는 일본 農林中金総合研究所의
「農林金融」 2009년 3월호에 실린 “大
規模稲作経営の実態と見えてくる課題”
을 번역·정리한 것입니다.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 목 차 ■

<요 약>

1. 머리말	1
2.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위치	1
3. 대규모 벼농사 경영체의 동향	4
4. 대규모 벼농사 경영체의 실태	12
5. 시사점 및 과제	23

< 요약 >

1. 현행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2005)에서는 「후계자(担い手)의 생산규모 확대, 저비용 기술체계의 도입·보급 등에 의해 생산성이 높은 논농업을 확립」 하는 것이 목표이며, 「농업 구조·경영의 전망」(2005년 개정)에서는 2015년 논농업의 구조를 가족농 8만호(15~20ha), 집락영농 경영체 2~4만호(34~46ha), 주종사자 1인당 연간소득 600~800만円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2007년도부터 소득보전정책의 대상자를 경영규모로 한정하는 논경영소득안정대책은 2004년산 쌀부터 쌀정책개혁에 따라 「벼농사기반확보대책」 「후계자(担い手)경영안정대책」 등으로 실시되어 왔다. 한편, 인프라로서 포장 정비를 보면 30a(0.3ha) 구획은 논 전체의 61%이며, 1ha 구획 이상은 8%에 머물고 있다(2006년).
3. 1995~2005년 기간 중 판매농가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벼농사 농가의 감소율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0ha이상 벼농사 농가는 2005년에 1.1만호(벼농사 판매농가의 1.1% 구성)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농가 이외의 벼농사 경영체도 증가하고 있으나 2.6천호에 머물고 있다.
4. 「10ha층」의 10a당 벼농사 부문의 수지를 보면, 토지생산성, 노동생산성의 경우 「농가」가 뛰어나지만, 소비자 직관이나 고부가가치 쌀을 지향하는 「조직법인」은 쌀 판매가격이 높기 때문에 조수익이 약간 높다. 물재비의 경우 양자의 차이는 거의 없다. 그러나 조직법인은 급여 등 판매관리비의 부담으로 농가에 뒤떨어져 최종 이익은 보조금 등을 더해도 적자가 된다.

벼농사 부문 이외를 포함한 경영 전체에서도 조직법인의 최종 이익은 적자이며, 보조금 등을 포함한 사업외수입에 의해 흑자가 된다(2006년).

5. 2003년에 조사한 전국 7개 농가의 실태에 대한 조사에서, 경영체 소재 시정촌에서는 지속적으로 벼농사 농가수가 감소하고 대규모 벼농사 농가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1개 경영체를 제외하고는 규모확대나 구획정비가 진행되지 않았다. 쌀 가격의 장기적 하락 추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직파 도입 동향에도 큰 변화가 없으며, 저비용화에 필요한 건답 직파를 실용화할 수 있는 것은 1개 경영체에 머물렀다. 한편 노동생산성은 미국 캘리포니아 벼농사의 1/8 이하 수준이다.
6. 조사 경영체의 대부분은 수익성 향상과 쌀 가격하락에 대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쌀 생산과 소비자직판을 실시하고 있다. 경영 한계 쌀 가격(60kg정곡)은 1~1.3만円で 높고 상승 추세에 있으며, 만일 쌀의 수입 관세가 철폐되면 2~5천원의 보전이 필요하게 된다.
7. 향후, 쌀 관세율이 인하되면 관행 재배의 일반미나 저가격의 업무용 수요는 수입쌀에 빼앗길 것이다. 개별 농가와 함께 집락영농의 조성과 육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1. 머리말

일본의 농업 문제로서 논농업(벼농사 단일농가와 벼농사 중심의 복합농가)의 구조개혁(규모 확대 및 주업 농가의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¹⁾

또한, FTA나 WTO 협상의 진전과 함께 일본 쌀의 수입 관세를 감축·철폐하고 자유화를 진행시키는 것이 농업의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글에서는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농정상의 위치와 관련 통계를 정리하면서 거기에 나타난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2.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위치

(1)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

1999년 시행된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에 근거해 제정된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현행 기본계획은 2005년 제정되었으며, 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은 향후의 정책 추진의 지침이며, 대체로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행 기본계획에서는 「... , 효율적 또는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농업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바람직한 농업구조의 확립을 위해서 의욕과 능력이 있는 후계자(担い手)의 육성·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라고 되어 있다. 쌀 생산 노력 목표로서 2015년도 891만톤(2003년도와 동일)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후계자(担い手)의 생산 규모의 확대, 저비용 기술체계의 도입·보급 등에 의해 생산성이 높은 논농업을 확립」하는 것을 설정하고 있다.

1) 2007년도부터 실시된 전후 농정의 대전환이라 할 수 있는 「논경영소득안정대책」을 의미함(2007년도까지는 「품목별단적경영안정대책」). 홋카이도(北海道)에서는 「논밭경영소득안정대책」으로 시행되고 있음. 이하에서는 「논경영소득안정대책」이라고 함

여기서 「효율적 또는 안정적 농업경영」은 원래 1993년 제정된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서 강조된 개념으로, 소득면에서 타 산업과 비교해 손색이 없는 경영이 지속되는 경영체를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농업구조의 전망」(2000년 제정, 2005년 개정)이 있다. 여기서는 2004년 현재 이것을 충족한다고 추정되는 「가족농업경영 12~15만호, 법인경영 6천호」정도를, 집중적·중점적인 시책에 의해 2015년에는 「가족농업경영 33~37만호, 집락영농경영 2~4만, 법인경영 1만」정도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²⁾. 이 중 수도작은 가족농업경영 8만호 정도, 집락영농경영 2~4만호(양자의 경영 경지면적 비중은 약 70~90%)이며, 예상 경영규모는 가족농업경영의 경우 15~25ha, 법인경영, 집락영농경영의 경우 34~46ha, 주종사자 1인당 연간소득은 600~900만円で 시산되고 있다(일본 농수성).

(2) 논경영소득안정대책 및 쌀 정책개혁

논경영소득안정대책은 규모 확대를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2007년도부터 실시되었으며 대상 경영규모는 기본적으로 개별농가 4ha(훗카이도 10ha), 집락영농 20ha 이상으로서 그 규모는 타산업 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시산·설정되었다.³⁾

2008년부터는 시정촌특인제도(市町村特認制度)의 마련으로 규모 요건은 한층 완화되었으나, 주된 정책 의도는 규모 확대에 있고, 기본적으로 소규모 농가는 집락영농을 조성하는 것 이외에는 정책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래, 1998년도부터는 자주유통미(自主流通米)(이하 「자유미(自流通米)」)에 대해 수급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던 것

2) 타산업과 동일한 소득수준의 농업경영체 현황과 전망

구분	가족농업경영	집락영농경영	법인경영
2004년 현재	12~15만호	-	6천개
2015년 전망	33~37만호	2~4만개	1만개

3) 生源寺(2008), 118~119페이지

으로서 가격정책과는 다른 농업경영안정대책 등이 정책 과제가 되었다. 생산조정 실시자가 출하한 자주유통미를 대상으로 한 소득정책인 「벼농사경영안정대책(稲作経営安定対策)」(이하 「도경(稻経)」)이 실시되고 있었다(쌀 가격 하락분의 80%를 보조).⁴⁾

쌀 정책개혁에서는, 이 ‘도경’을 2004년산 쌀부터 「벼농사소득기반 확보대책(稲作所得基盤確保対策)」(이하 「도득(稻得)」이라고 한다)으로 개편하고(쌀 가격 하락분의 50%+60kg당 300円 보조), 이것에 「후계자경영안정대책(担い手経営安定対策)」(이하 「담경(担経)」이라고 한다)이 추가되었지만(벼농사 수입감소액의 90%를 보전하는 것으로 ‘도득’에 의한 보전액은 공제), 가입 요건은 이미 현재의 논경영소득안정대책의 규모 요건의 원형을 이룬 것이다.

(3) 토지개량 장기계획

대규모 벼농사 농가를 인프라면에서 지지하는 조건으로 중요한 것이 토지개량이며, 기본적으로는 토지개량법에 의거하는 「토지개량장기계획」(농수성 소관·각의 결정)에 근거해 실시되어 왔다. 이 중 포장정비는 196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97년 기준으로 30a 이상의 포장정비율은 논 전체의 약 55%, 150만ha에 이르렀다.⁵⁾ 1993년도부터는 농업 생산 기반 정비와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기반 정비사업이 실시되어 1994년도에는 대구획 등의 기본정비의 조기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진행되었다.⁶⁾ 2006년에 30a(0.3ha) 정도의 「표준구획정비완료」 면적은 논 전체의 60.5%인 154만ha까지 증가했지만 1ha 정도 이상의 「대구획정비완료」 면적은 논 전체의 7.5%인 19만 ha에 머물렀다.⁷⁾

토지개량 기본계획은 제4차 계획(1993~2002년도)까지는 사업규모를

4) 吉田(2003), 75~76 페이지

5) 石谷(2002), 56 페이지

6) 石原(2008), 128~132페이지

7) 2008.10.28 「일본 농업 신문」

보이며 포장정비를 적극 추진했지만, 제5차 계획(2003~2007년도)에서는 재정규율의 제약 등도 있어 목표가 농지이용집적율로 변경되었다. 제6차 계획 (2008~2012년도)에서는 「효율적 또는 안정적인 경영체의 육성과 농지이용집적 향상」이 목표로서 기반정비지구 경영체의 이용집적율을 약 70% 이상으로, 이 중 면적집적율을 약 70% 이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량의 경우 의욕과 능력이 있는 농가에 이용을 집중하는 조건으로서 약 7.5만ha의 농지에서 구획정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3. 대규모 벼농사 경영체의 동향

(1) 경영체수

1995~2005년 기간 중 판매농가(販売農家)⁸⁾가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벼농사농가(稲作農家)⁹⁾는 더 큰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10ha 이상의 벼농사 농가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2005년에 1만 1,392호(벼농사 판매농가의 1.1% 구성)에 머물렀다. 또한, 농가(가족농업경영) 이외의 사업경영체수와 그 중 벼농사 단일 사업경영체수는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2005년에 각각 1만 3,742개, 2,083개(벼농사 준단일 복합 사업체수도 포함하면 2,635개)에 머물고 있다.¹⁰⁾

벼농사1위¹¹⁾ 사업경영체의 경우 작부규모별·지역별로 보면 10ha 이상 계층이 1,536개로 54.7%를 차지하여 2000~2005년 기간 중의 증가율도 2.6배로 높다. 지역별로는 2005년의 경영체수(877개, 구성비 31.2%)와 5년간의 증가수(434개, 구성비 29.0%)에서도 호쿠리쿠(北陸)지방이 압도적으로 많고, 킨키(近畿), 츄고쿠(中国), 토호쿠(東北)지방 순이다. 또한, 법인 조직수도 호쿠리쿠(北陸)지방이 432개로 압도적으로 많다.

8) (역자주) 경영 경지면적이 30a(0.3ha) 이상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50만円 이상인 농가

9) 벼농사 단일 경영 농가와 벼농사 준단일 복합 경영 농가의 합계. 벼농사 단일 경영 농가는, 벼농사 수입이 80% 이상인 판매농가, 벼농사 준단일 복합 경영 농가는, 벼농사 수입이 60~80%로 다른 작목도 경영하고 있는 판매농가.

10) 若林(2008), 2(2)에 대해서도 같다.

11) 「벼농사 1위」는 벼농사 수입이 과반으로, 벼농사 단일 경영 사업체와 벼농사 준단일 복합 경영 사업체의 합계에 벼농사 수입이 50~60%인 벼농사 사업체를 더한 개념.

(2) 논 집적 상황

대규모 벼농사 경영 농가의 논 집적 상황도 마찬가지로, 1995~2005년 기간 중 판매농가의 논 경영면적이 감소하였으며, 벼를 재배한 논 경영면적 감소율은 더 크게 나타나는 추세이다. 판매농가 중 10ha 이상인 농가의 벼 재배면적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2005년에 16.9만 ha(벼 재배면적의 11.0%)에 머물고 있다.

또한, 농가(가족농업경영) 이외의 사업경영체의 벼 재배면적은 증가하고 있지만, 2005년에 4만ha(벼 재배면적의 2.6%)에 머물고 있다. 논 임차면적은 1995~2005년간 판매농가와 농가 이외의 사업경영체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판매농가 중 10ha 이상인 농가의 성장이 크고, 2005년에 10ha 이상인 농가의 논 임차면적 11.5만 ha는 판매농가 전체의 논 임차면적의 27.4%를 점유하였다.

(3) 경영 수지

a. 쌀 생산비 구조

경영규모를 확대하면, 단위 생산량당 고정비(가족노동비, 농기구비(감가상각비) 등)는 감소하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작부 규모가 클수록 쌀 생산비는 감소한다. <그림 1>은 생산비와 쌀 가격을 비교한 것으로, 현행 쌀 가격으로 물재비, 지불이자·토지임차료를 충당하고 가족노동비를 전액 회수하려면(지불이자·토지임차료 산입 생산비 회수) 2 ha 이상이 필요하다.

지불이자·토지임차료를 포함한 생산비 회수에 필요한 한계 쌀 가격은 0.5ha 미만인 농가로부터 5~10ha 농가로 갈수록 비례적으로 감소하지만, 그 이상의 규모 확대에 의한 생산비 감소 효과는 작는데, 이는 일본의 대규모 벼농사에서 일반적인 분산작포(分散錯圃)¹²⁾의 비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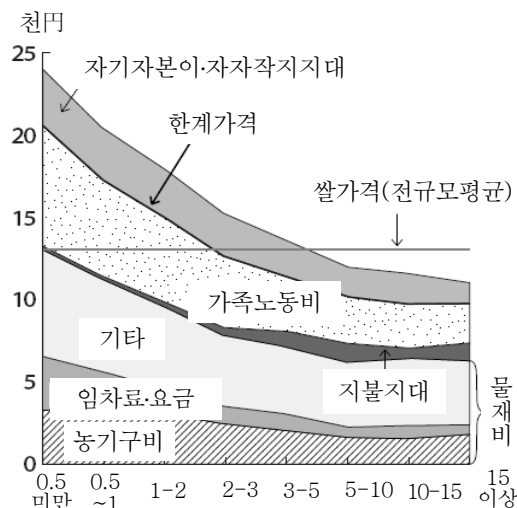
12) 농지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고 더구나 이 농지가 다른 사람의 것과 섞여 있는 것을 말하는 일본 특유의 토지조건형태를 이르는 말이다.

율성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대상은 쌀 판매농가이며 (3) b에 대해서도 같다).

b. 벼농사 부문 수지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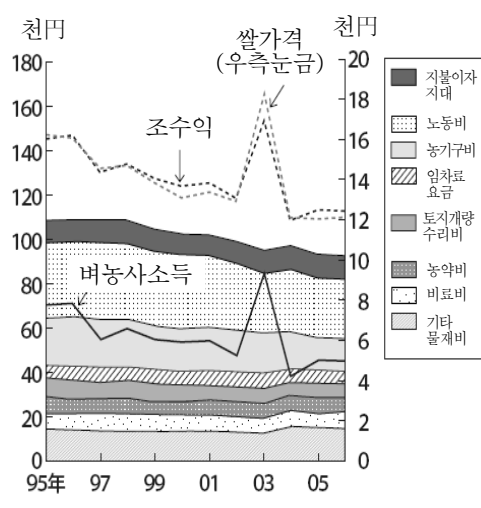
<그림 1>의 쌀 가격과 생산비의 관계의 연도별 변화를, 5ha 이상 농가에 대하여 10a당으로 본 것이 <그림 2>이며, 쌀 가격과 조수익은 식량법 시행(1995년) 이후에도 감소 추세에 있다.

<그림 1> 규모별 쌀 생산비와 가격
(60kg당, 2006년산)



자료 : 農水省 「米生産費統計」, 清水(2004) p.61를 업데이트 하여 재배규모 범위 확대, 한계쌀 가격 보충

<그림 2> 벼농사 수지의 추이
(전국, 5ha 이상, 10a당)



주 : 쌀 가격은 60kg당 가격
자료 : 農水省 「米生産費統計」으로부터 작성

한편으로 생산비(<그림 2>에서는 자기자본이자·토지임차료를 제외한 지불이자·토지임차료산업생산비)도 농기구비와 노동비의 감소를 주된 요인으로 하여 감소하고는 있지만, 매년 수지결과(=마진=경상이익·조수익의 꺾은선 그래프와 면 그래프의 간격)와 벼농사 소득은 감소 추세에 있다.

농기구비의 감소는 경영의 어려움에 따른 갱신 유보가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노동비의 감소는 주로 작업 위탁의 진전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c. 경영 형태별 벼농사 부문 수지의 동향

위와 마찬가지로 10a당 벼농사 부문 수지를 10ha 층의 「농가」, 「조직법인」, 「집락영농 (수지까지 일체화되고 있는 것)」의 3개의 경영 형태별로 살펴본 것이 <표1>이다.¹³⁾

단수, 토지생산성(노동시간), 노동생산성은 농가가 우수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 직판에 의한 소비자가격으로의 판매나 고부가가치 쌀 지향이 강한 조직법인은 쌀 판매가격이 높기 때문에 조수익이 농가보다 2천円이 더 높다.

생산원가는 ‘농가’의 8만 3천円에 비해 경영지향으로 생육관리의 정교하고 치밀한 정도가 높은 ‘조직법인’의 경우 농약·비료비, 임차료 및 요금, 노동비가 높아 농가보다 3,600円 높고, 일반적으로 건조·조제시설 이용료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예가 많은 ‘집락영농’의 경우 임차료 및 요금이 1만円 이상 높은 경우도 있어 농가보다 1만 7천円이 높다.¹⁴⁾ 물재비만을 비교한다면 조직법인이 농가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농가와 조직법인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

매출총이익도 농가가 1,600円 정도 상회할 뿐 농가와 조직법인간에 큰 차이는 없다.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조직법인의 경우 급여 1만円을 포함한 판매관리비가 2만円 수준이기 때문이다.¹⁵⁾

13) 농가 이외의 벼농사 농업 경영체수의 97%는 도부현에 소재하는 것부터, 비교하는 농가의 수치는 도부현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집락영농의 노동비(구성원)는 통계 수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농가의 노동비를 노동 시간으로 환산한 추정치를 대입하고 있지만, 실제로 집락농장형 집락영농의 경우에는 노동비를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는 예가 많다.

14) 덧붙여서, 벼농사 단일 경영 농가의 농수성 「영농유형별경영통계(개별경영편)」의 경우 「임차료, 작업 위탁료」는 6,480円(10a당, 2006년) 수준이다. 본고에서는 농가와 관련하여 「쌀생산비통계」를 이용하는 것은, 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노동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에 의한다.

15) 표 1의 집락 영농의 판매관리비 1,500円에 상당하는 벼농사 단일 경영 농가의 판매관리비(기획관리비, 포장·운반 등 요금)는 2,083円(10a당, 2006년) 수준이다(농수성 「영농유형별경영통계(개별경영편)」). 쌀생산비통계에서 농가에는 조직법인의 판매관리비에 상당하는 것은 계상되어 있지 않다.

<표 1> 농업경영체의 10a당 벼농사 부문 수치(2006년)

(단위 : 円)

구 분	농가(도부현) 10~15ha	조직법인(전국) 10~20ha	집락영농(전국) 10~20ha
벼 재배면적	1,226	1,407	1,367
단수(kg/10a)	531	461	485
노동시간(h/10a)	17.9	21.0	19.8
조수익①	117,599	119,602	114,001
쌀 가격(円/60kg)	13,276	15,582	14,114
생산원가②	82,531	86,155	99,147
농약비료비	11,851	13,738	19,583
임차료 및 요금	5,581	7,626	20,183
노동비③	26,015	30,185	26,228
(구성원)	23,146	19,758	25,701
농기구비	15,295	16,731	14,770
물재비계④=②-③	56,516	55,970	71,419
매출총이익⑤=①-②	35,068	33,447	16,354
관관비⑥		20,327	1,500
급료		10,874	
영업이익⑦=⑤-⑥	35,068	13,120	14,855
지대	10,953	8,813	1,514
지불이자·지대산입생산비⑧	91,486	115,871	102,680
경상이익⑨=①-⑧	26,113	3,731	11,321
자작지(원내)지대	13,530	13,227	
전산입생산비⑩	108,441	139,097	102,680
최종이익⑪=①-⑩	9,158	△9,495	11,321
보조금 등	3,491	6,254	11,141
최종이익(보조금등포함)	12,649	△3,241	22,463
소득	49,259	34,364	37,023
소득(보조금등포함)	52,750	40,618	48,164
가족(구성원)노동보수	32,304	21,137	37,023
(한계쌀가격)			
①지불이자지대산입생산비기준	10,337	15,096	12,712
②전산입생산비기준	12,253	16,819	12,712

자료: 農水省 「米生産費統計」, 「営農類型別経営統計(組織経営編)」에 시산 노동비를 가미하는 등 가공하였으며,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입각해서 집계

1. 조직 경영체의 수지는 벼농사 단일 경영의 벼농사 부문 수치
2. 조직경영체의 소득, 가족노동보수는 「농가」에 있어서의 개념을 준용해 산출
3. 집락영농의 노동비(구성원)은 「농가」의 노동비를 노동시간으로 환산 추정
4. 집락영농의 관관비는 「기획관리비+포장운반료」. 대응하는 농가의 값은 2,083円(본문(주11)참조).
5. 농가의 보조금 등은 소득, 담경, 집하원활화만이며, 조직경영체에는 농업공 제수취금을 포함한다.

표면상의 수치에 따르면 영업이익 단계 이하에서는 조직법인이 농가보다 판매관리비 2만円 정도 실적이 악화된다. 문제는 이러한 실적 악화로 생산비(구성원지불이자·구성원지불토지임차료 전액 산입) 차감 후의 최종 이익이 적자가 되는 것이다.

<표 1>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은 벼농사 재배 규모가 20~30ha, 30ha 이상인 구간에서도 같다. 보조금 등(조직법인은 ‘도득’, ‘담경’ 등 외에 농업공제수취금을 포함한다)을 더해도 적자이며, 30ha 이상 규모에서 처음으로 1,500円의 흑자가 생긴다. 이 때문에 지불이자·토지임차료 산입 생산비를 회수하는데 필요한 쌀 가격(한계 쌀 가격)은 농가의 1만円에 비해 조직법인은 1만 5천円으로 높아진다.

물론, 구성원에게 지출한 노동비, 급여, 이자, 토지임차료를 합산한 벼농사 소득은 3만 4천円, 보조금 등을 포함해서는 4만 1천원의 흑자가 된다. 이 수준은 벼농사 재배 규모 20~30ha, 30ha 이상 규모에서도 그 정도의 차이는 없다. 수입과 이익·소득의 관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조수익(수입)과 수익·소득의 관계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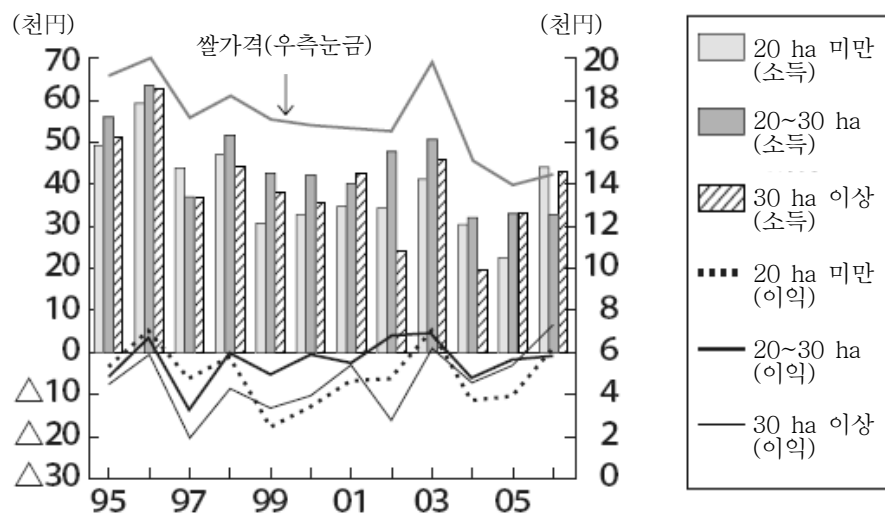
조수익(수입)의 구성요소			경영이익 (영업이익)	소득
조 수 익 ^ 수 입 v	생산자이득(최종이익)		경상이익	소득
	자기자본이자			
	자작지지대			
	가족노동력		지불이자·지대 산입 생산비	가족노동비를 제외한 생산비
	경비	물재비		
		지불이자		
		지불지대		
고용노동비				

자료 : 農水省 「米生産費統計」 외로부터 작성

1. 조수익으로부터 지불이자·지대 산입 생산비 차감 후의 이익은 <표 1>에서는 「경상이익」이라고 하고 있지만, 「영농 유형별 경영 통계」(조직 경영편) 등에서는 「영업이익」임
2. 경상이익이 0인 경우는 소득=가족노동비가 되어 이 때의 조수익(수입)이 한계수익(수입)임

다음으로 이 상황의 장기적인 동향으로서 식량법 시행(1995년) 이후 벼농사 1위 조직법인의 벼농사 부문 이익·소득의 추이를 살펴보면, 보조금 등을 포함한 최종이익은 벼농사 재배 규모와 관계없이 적자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벼농사 소득도 쌀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속에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4).

<그림 4> 벼농사1위법인의 벼농사부문 이익·소득의 추이



자료 : 農水省 「農業組織經營体調査報告書」, 「営農類型別經營統計 (組織經營編)」으로 부터 작성

- 주 1. 「이익」은 전체산입생산비 차감 후의 최종이익으로 보조금·농업공제수취금을 포함함. 통계는 「영업이익(벼농사경영부문)」임(2004년 이후는 보조금 등을 별도 가산).
2. 「소득」은 최종이익에 구성원에게 귀속하는 노동비, 급여, 지대, 이자를 더한 것
3. 「20ha미만」은 2002년부터는 「10~20ha」.
4. 「쌀가격」은 2003년까지 「벼농사 1위로 10 ha이상의 사업체」에 있어서의 생산량에 의한 평균치이며 2004년 이후는 「조직법인의 벼농사 1위 경영」의 수치

d. 경영 형태별 경영 전체 수치

그러면, 벼농사 부문을 포함한 경영 전체의 수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 벼농사 1위의 농업경영체의 전체 수지를 10ha 층의 「농가」, 「조직법인」, 「집락영농」 3개의 경영 형태별로 살펴본 것이 <표 2>이다. 조직법인은 경영 전체에서도 생산비(구성원지불이자·구성원지불토지임차료 전액 산입) 차감 후의 최종 이익이 적자이며, <표 2>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경영 규모 20~30ha, 30ha 이상 규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다. 이것을 농업수입 대비 9~21% 수준의 보조금 등을 포함한 사업 외 수입으로 충당해야 간신히 세금공제전 이익이 흑자가 된다. 농업소득에 포함된 실질보조금의 비율은 23%로 높아(농가 22%, 조직법인 23%, 집락영농 30%), 현시점의 「효율적 또는 안정적 농업경영」의 실태는 고율의 수입 관세 외에도 보호가 필요한 취약성을 갖고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2〉 벼농사 1위의 농업경영체의 경영 전체 수지(2006년)

구 분	농가 (도부현)		조직법인 (전국)		집락영농 (전국)	
	10~15h	구 성 비	10~20h	구 성 비	10~20h	구 성 비
전업환산농업종사자수	3		2		2	
경영면적	1,236	96	1,741	99	1,630	13
임차면적	579	47	1,710	98	204	13
수입합계	18,196	100	26,657	100	19,284	100
사업수입	14,276	78	22,159	83	16,091	83
농업수입	14,256	78	20,360	76	16,091	83
쌀	10,035	55	14,099	53	13,984	73
맥류	614	3	58	0	446	2
대두	560	3	305	1	352	2
농작업수탁수입	783	4	4,048	15	921	5
사업외수입	3,920	22	4,498	17	3,193	17
보조금 등	1,958	11	1,772	7	2,932	15
농업수입대비	1,958	14	1,772	9	2,932	18
지출합계	10,746	59	25,959	97	11,448	59
최종이익	3,897	21	△2,567	△10	4,739	25
세금공제전이익	7,450	41	698	3	7,836	41
농업소득	5,835	100	6,230	100	7,276	100
정미보조금 등	1,289	22	1,405	23	2,148	30

자료 : 農水省, 「営農類型別経営統計 (個別経営編), (組織経営編)」을 이용하여 집계

주 1. 농가, 집락영농의 「보조금 등」은 상대 비교를 위해서 사업외수입으로 산입

2. 「보조금 등」은 농업공제수취금을 포함함

3. 「정미보조금 등」은 보조금등으로부터 해당 부금 등을 공제한 것

4. 「면적」의 구성비는 경영 경지면적에 대한 비중

4. 대규모 벼농사 경영체의 실태

2003년에 필자가 소속해 있는 농림中金總合研究所(農林中金總合研究所)에서 조사¹⁶⁾한 각지의 대규모 벼농사 경영체의 경영실태를 2008년 10월부터 11월 초에 걸쳐 조사하였다. 앞부분의 동향 정리를 근거로 하여, 개별 실태를 파악하면서 대규모 벼농사 경영의 현상과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 경영체는, 홋카이도(北海道)의 A유한회사, B농가, 토호쿠(東北)의 C농가, 기타칸토(北關東)의 D주식회사, 미나미칸토(南關東)의 E농가, 킨키(近畿)의 G, H집락농장 등 7개 경영체이다(표 3).

(1) 지역 농업 구조의 개요

조사 대상 경영체가 소재하는 시정촌(市町村)의 농업 개요는 <표 4>와 같다. 산간 농업 지역은 없고 농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쌀의 비중이 평균보다 높다. 평균 농업소득은 동고서저로 서쪽으로 갈수록 겸업 기회가 많은 구역으로서 겸업 경향이 강하다. 벼농사 농가수는 토호쿠(東北)의 C村을 제외하고는 20년간 41~59% 급감하고 있다(그림 5). 덧붙여서 유희농지(耕作放棄地) 비율¹⁷⁾은, 대도시 근교에서 도시화가 진행된 미나미칸토(南關東) E村에서 급상승(85년의 1.1%에서 2005년의 13.4%에)하였으며, 기타칸토(北關東) D町, 킨키(近畿) H町에서 소폭 상승한 것 외에는 1%대에 머물고 있다(토호쿠(東北) C村은 0%).

또한, 대규모 경영 농가수는 홋카이도의 A町, B市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농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1.2%, 35.5%가 되었다(20ha이상, 2005년, 농림업센서스). 이주시 호당 15ha를 분양했던 토호쿠(東北) C村은 전체가 대규모 경영 농가(5ha이상)이지만, 최근 일부 농가의 이농으로 느린 속도이기는 하지만 규모 격차가 발생하고

16) 須田敏彦(2003). 경영체의 부호(알파벳)는 전회 조사와 이번 조사가 동일함

17) 유희농지 비율={유희농지 면적 / (경영경지면적+유희농지 면적)}×100

<표 3> 조사 경영체의 경영 개황

구 분		홋카이도 A경영체	홋카이도 B경영체	토호쿠 C경영체
		유한회사	가족경영	가족경영
경영규모	경영면적(ha) ①	101	15	15
	자작지(ha)	36	15	15
	작업수탁면적(ha) ②	-	2.5	-
	총작업면적(ha) (① + ② - 작업위탁) ③	94	17.5	15
	벼재배경영면적(ha) (작업수탁 제외)	94	12	8.9
노동력	기타작물(작업수탁 제외)	메밀 7ha (전체 위탁)	유기양과 1.5ha 스위트콘 1ha	호박 1.1ha 대두 5ha
	가족노동력(명) ④	3	3	2.6
	종업원(명) ⑤	2(4~11월)	-	-
	기간노동력(명 ④+⑤) ⑥	5	3	2.6
생산기술·기반	임시고용	연 240명	연 240명	연간 30인
	주요 기구 장비	트랙터 80~90ps(4대), 50,20ps (각1대) 이앙기 8조(3대) 콤바인 6조(3대)	트랙터 65, 59, 46, 32, 14ps(각1대), 이앙기6조(1대), 콤바인6조(1대)	트랙터 70~90ps(3대) 이앙기8조(1대) 콤바인 5조(1대) 스렛사콤바인4m(2대)
	포장 크기 (a/개)	30~40	40	125~250
	가장먼포장까지의거리(km)	5	1	4
	임차료(만엔/10a)	평균1.5	-	-
벼의 품종	벼의 품종	호시노유메 키라라(2~3%)	키라라 나나츠보시 오보로즈기	아키다코마치 다즈코마치
	쌀 재배방법	이식	이식 (유기재배3ha)	이식, 관행 1.2ha 저농약저화학비료 5ha, 유기재배2.5ha
판매	쌀 판매방법	JA 95% 소비자직판 5%	JA 70% 소비자직판 30%	모두 C.E공사 (위탁판매)
	판매단가 (円/60kg·현미)	13,000위	12,000전후(JA) 22,000(유기·직판)	13,500(관행) 15,000(백배·백미) 13,800(저농약비료) 17,000(유기)
경영효율	기간노동력생산성(ha/명)	19	5.8	5.8
	벼농사 노동생산성 (수확까지의 노동시간/10a)	10	관행 19 유기 22·23	10
	단수(kg/10a)	560	540(관행) 500(유기)	600(관행) 540(저농약비료) 480(무농약비료)
	경영한계가격(円/60kg·현미)	11,000	목표 9,000 (절반은 고가직판)	13,000
	연간최저기대소득(만円)	-	700~800	1,000
동향	인정농업자(명)	법인	1명	1명
	후계자	자제	자제	자제(미확정)

자료 : 각 경영체로부터의 청취조사에 의함. 양식은 須田(2003)에 후계자 동향을 부가

1. 투하 총노동시간을 2,000(노동력의 연간 노동시간)으로 나누어 산출
2. 경영한계가격(P)은 지대1.3만円/10a으로 다음의 계산식으로 필자가 산출

$$P * (\text{총수량}) = (\text{임금포함 총지불비용}) + (\text{지가 상당액})$$
3. 트랙터의 ps는 마력을 나타냄

기타칸토 D경영체 주식회사(1호1법인)	미나미칸토 E경영체 가족영농	긴키 G경영체 집락농장(임의조합)	긴키 H경영체 집락농장(임의조합)
60	30	36	74
7.4	4.8	36	72
6~7	2(수확만)	-	-
66·67	32	36	74
46(7ha는 가공미)	30(7.5ha 사료벼)	25	56
밀 14ha 메밀 2ha, 대두 15ha	없음	밀 11ha, 대두 5ha	밀 22ha 대두 18ha(이모작)
4	3	29호	86호
1+1(태국인) 연수생	-	-	-
6	3	1.9(*)	4.4(*)
연간 100인	연간 3인	없음	없음
트랙터 95,85,79,36,32 ps (각1대), 이앙기 8조 (1대), 콤바인 8조 (1대) 범용콤바인 (1대)	트랙터 31~79ps(5대) 31,22 ps(각1대) 이앙기 8조 (1대) 콤바인 6조 (1대)	트랙터 (5대) 이앙기 8조 (2대) 직파기 (1대) 콤바인 (2대)	트랙터 53~55 ps (5대) 이앙기 6,8조(4대) 콤바인 6조 (2대) 직파기 (3대)
4~135(평균25)	1~750(약 80개)	평균50(휴경제외)	평균 60
8	20	0.5	1
1.6	0.5~3.9	1.3	1.2
고시히카리 아사히노유메 밀키린	고시히카리 후사코가네 돈토코이	키누히카리, 야마다니시키, 고시히카리, 니혼바레 하노하카리, 레이크6 5, 모치	키누히카리 고시히카리 日本晴, 秋の詩
이식 저농약·화학비료 30ha 무농약·화학비료 0.4ha	이식 12ha 직파 18ha (홀크로프사이리지 7.5ha)	이식 17.4ha 직파 7.1ha	이식 33ha 직파 23ha
직판(외식용90%, 소비 자10%), 가공미 JA	JA 50% 상계 50%	JA 15%, 상계 47%, 밥쌀·친척·지인 38%	조합원 등 43%, 일반 22%, 상계 등 35%
18,000~19,000 (정미판매)	13,800	12,000(JA) 12,000(상계) 15,000(밥쌀) 17,400(친척) 17,400(지인) (키누히카리의 경우)	16,000(상계) 17,000~18,000 (조합원등·일반)
11	11	19	17
10 (벼베기 효율은 30% 향상)	이식 10, 직파 7~8	이식 16, 직파 11	이식 18, 직파 14
510~540	480~540(이식고시히카리) 660(이식후사코가네)	519(이식 키누히카리) 520(직파 키누히카리)	510(이식) 510(직파)
15,000(정미판매)	12,000	11,504(**)	10,000
2,000	1,500	-	-
본인+ 자제	법인	-	-
자제	자제	20~30세 젊은이	최소 10년은 문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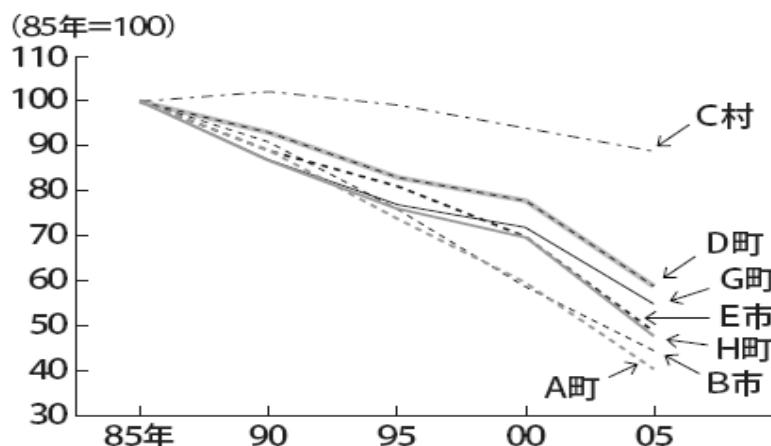
있고, 대규모 경영 농가수는 감소 경향에 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대규모 경영체 수가 정체하다가(키타칸토(北關東) D町) 완만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총 농가수가 감소하는 중에도 구성 비율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으나, 그 비율은 1.9%(킨키(近畿) G町)에서 2%대 중반 수준이며(킨키(近畿) H町, 미나미칸토(南關東) E市), 가장 많은 키타칸토(北關東) D町の 경우 경영체수는 67개로 구성 비율은 5%에 머물고 있다.

〈표 4〉 조사대상 경영체 소재 시정촌의 농업 개요(2005년)

구 분	농업지역 유형	농가총수	1차산업취업자비율	농업조생 산액에서 차지하는 쌀의 비중	농가의 평균농업 소득
홋카이도(北海道) A町	중간	485	23	35	5,724
홋카이도(北海道) B市	도시적	761	10	50	4,087
토호쿠(東北) C村	평지	501	78	93	8,643
키타칸토(北關東) D町	중간	1,334	15	47	1,169
미나미칸토(南關東) E市	도시적	1,503	2	31	1,365
킨키(近畿) C町	평균	755	5	60	569
킨키(近畿) H町	도시적	887	5	63	507

자료 : 農水省 「農林業センサス」, 朝日新聞社編 『民力』,
農水省 「生産農業所得統計」, 須田(2003) p.4를 업데이트
주 : G, H 町은 합병전의 구행정구획

〈그림 5〉 벼농사 농가수의 변화(지수)



자료 : 農水省 「農林業センサス」, 須田(2003) p.4의 대상을 벼농사 농가에 한정하여 업데이트

(2) 경영 규모의 확대

조사 대상 7개 경영체 중 A~E 경영체는 5년 전의 시점에서 각각 확대 과정을 거쳐 대규모 벼농사 경영체가 된 단독 경영체이지만, 최근 5년간의 확대 속도는 키타칸토(北関東) D경영체를 제외하고는 완만하다. 이는 쌀 가격의 장기 하락 추세 등 환경조건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홋카이도(北海道) A경영체의 총 경영 면적은 101ha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전의 임차지였던 11ha를 구입해 자작지가 36ha로 증가한 것 외에는 토지의 교체는 한 곳만 있었다. 町내에서 고품질 쌀 생산자에게 생산범위를 배분한 결과, 메밀의 재배 면적은 7ha로 반감하였지만 그 만큼 벼농사 경영 면적이 증가하였다. 홋카이도(北海道) B경영체의 총 경영 면적은 1ha 감소한 15ha가 되었다. 10년 계약의 임차지 3ha를 반환하고, 인접지(경작자 사망) 2ha를 구입했다. 해당 임차지에서 실시하던 맥류 재배를 그만두고 연작장해를 피하기 위하여 ‘스위트콘’ 1ha와 유기 양파 1.5ha 정도의 재배를 시작하였으나, 벼농사 경영 면적은 12ha로 변하지 않았다. 양파 농가에게는 장래성이 있으나 벼농사 농가에게는 장래성이 없고, 노동력의 여유가 없어 인근에서 경작 의뢰를 받지만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호쿠(東北) C경영체는 결과적으로 이주할 당시의 기본 면적 15ha인 상태이지만, 이전에 대두 수탁재배를 실시하고 있던 15ha의 임차지를 반환해 총작업 면적은 감소하였다. 밀은 유리한 점이 적어 그만두고 대두에 특화(5ha)하였으며, 벼농사 경영 면적을 1.1ha 줄이는 대신 호박 재배를 시작했다. 또한, 쌀 가격 1.2~1.3만円으로는 벼농사 경영이 어려워 노동집약적 경영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유기농 쌀 재배를 시작하였다. 벼농사 경영 규모의 확대는 토지임차료나 토지개량비 부담이 높아 채산성이 없어 지향하고 있지 않다.

유일하게 키타칸토(北関東) D경영체는 의욕적으로 이전에 자작지 3ha, 임차지 13ha를 증가시켜 총 경영 면적은 36% 증가한 60ha가

되었으며, 벼농사 경영 면적은 10ha 증가한 46ha(가공미 7ha를 포함)가 되었다. 메밀은 단가도 싸고 산지만들기 교부금액도 적기 때문에 줄여 2006년부터 대두 15ha를 시작했다(밀은 배로 증가한 14ha). 멀리 떨어진 포장을 가까운 포장과 교체하면, 앞으로 10ha 정도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한다. 2008년 4월부터 가족 경영을 주식회사로 만들어,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함과 동시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종업원의 고용을 안정화하며, 사업 전개를 용이하게 하려고 노력중이다. 또한, 자가 정미를 실시하고 있으며 창고와 건조 설비를 증강하였다.

미나미칸토(南関東) E경영체는 노동력이 힘에 부쳐 최근 3년간 인근의 위탁영농 의뢰를 거절하고 있다. 총 경영 면적 및 벼농사 경영 면적은 변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 7.5ha의 Whole Crop Silage(벼 발효사료) 사료용 벼 재배 면적도 불변이다. 하지만 모두 넓은 면적의 포장이라면 70% 정도 증가된 50ha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고 한다.

킨키(近畿) G, H경영체는 집락농장형(완전협업형) 집락영농이며, 1990년 S현의 촉진 정책으로 조성되어 5년 전부터 이미 대규모 벼농사 경영체가 되어 있었지만, 이전에 가입한 농가가 있어 경영 규모가 확대되었다.

G경영체는 가입 농가가 5호 증가하여 총 경영 면적은 24% 증가한 36ha(집락내 전체 50ha 중의 72%)로 되었으며, 벼농사 재배면적도 25% 증가한 25ha가 되었다. 앞으로도 집락 지역을 벗어나는 규모의 확대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밀과 대두는 논경영소득안정대책에 의해 품목으로서 채용하고 있으며 잉여 노동력을 고려하면 작물의 다양화도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H경영체는 부재 지주의 소작분 2ha가 증가해 총 경영 면적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벼농사 경영 면적도 증가했다. 또, 전작율의 상승에 따라 밀(+5ha)을 중심으로 경작면적을 늘리고 있다. 인근의 다른 집락농지로의 규모 확대는 앞으로의 과제이지만, 10년 내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생산 기반·기술

7개 경영체의 생산기반, 생산기술 동향을 보면 이미 5년 전에 구비하고 있던 것이 기본적으로 계승되고 있어 큰 변화는 없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토호쿠(東北) C경영체에서 유기농 쌀 재배가 시작된 것과 의욕적인 키타칸토(北關東) D경영체에서 저농약·저화학비료 쌀 재배가 30ha(67% 증가)로 증가하였다. 이외에 포장 구획에 대해 C경영체에서 논두렁을 제거함으로써 2.5ha 크기의 논이 생긴 것과 킨키(近畿) G경영체에서도 논두렁을 제거함으로써 평균 49a 논이 50a로 확장된 것이 주요한 변화이다. 기계 장비는 D경영체에서 트랙터, 범용 콤팩트인이 각각 1대씩 증가하였다.

직파의 도입 동향에도 큰 변화는 없다. 7개 경영체중 5년 전에 직파를 실시하고 있던 3개 경영체가 계속해서 직파를 일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홋카이도(北海道) A경영체에서는 습전(水田)이어서 직파(乾田)를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같은 지역 B경영체도 이탄(泥炭) 습전 지대이며 품종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한편, 키타칸토(北關東) D경영체에서는 건답에서 물리적으로 담수 직파가 어렵고, 정보·노하우 부족과 육묘 하우스설치에 여유가 있음을 이유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미나미칸토(南關東) E경영체에서는 1983년부터 건답 직파를 실시하고 있지만 7.5ha 면적의 지하배수가 잘 정비된 포장이 전부이다. 킨키(近畿) G경영체에서는 과거 건답 직파나 흙뿌리기의 실패로 담수 직파가 제일 안정적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이전에 직파 면적을 90% 증가한 7.1ha로 늘렸다. 그 이유는 육묘 하우스와 이앙기의 제약에 따른 것이다. 같은 지방의 H경영체의 직파 채택 이유도 생산비 절감보다 건조조제 작업의 평준화(여기에서 직파분은 수확기가 9~10월로 늦어진다)와 육묘 하우스 면적의 제약에 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효율화, 저비용화의 주요 기술로 여겨지는 직파는 일본의 경우 정말로 적지적작의 말이 들어맞는 것처럼 경영전략과 포장조건에 의해서 그 실현 형태는 달라진다. 노동집약적인 정밀한 생육 관리를 지향하는 경우에는 담수 땅 속 직파가 되어, 종자의 석회 코팅과

이식기(植付機)에 의한 한 알씩 심는 것은 생력성(省力性)이 없으며, 생력성(省力性)이 높은 건답 직파는 건답(점토질 습전이 아니다)의 대규모 포장과 지하 배수 등이 그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덧붙여 생력성(省力性)이 높은 7.5ha 포장에서의 건답 직파를 실시하는 E경영체에서도 투하 노동시간(수확까지의 노동시간/10a)은 7~8 시간이며, 캘리포니아의 약 280ha의 벼농사 경영의 투하 노동시간 0.9시간¹⁸⁾의 8~9배가 되고 있다.

(4) 생산 품목과 판매 채널

대규모 벼농사 경영체는 일반적으로 경영의 수익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부가가치 쌀 생산과 소비자 직판을 통한 소비자가격으로의 판매를 지향한다. 7개 경영체의 경우 홋카이도(北海道) 101ha의 유한회사 A와 미나미칸토(南関東)의 저비용 지향의 30ha 농가 E를 제외한 B, C, D, G, H의 5개 경영체 모두 유기재배 쌀이나 저농약·저화학비료 쌀을 재배하고 있으며 D경영체는 자가 정미와 건조까지도 하고 있다. 또 G경영체는 판매단가를 높이기 위해 양조용 쌀인 ‘야마다니시키(山田錦)’를 생산하고 있다.

판매 채널을 보면, 전량을 컨트리·엘리베이터 공사(이하 「C.E.공사」라고 한다)에 위탁판매하는 C경영체와 전량을 JA, 상계에 위탁·도매 판매하는 E경영체를 제외한 모든 경영체가 소비자 직판을 하고 있다. B경영체의 유기재배 쌀 소비자 직판 가격은 2.2만円(60 kg·현미), C경영체의 유기재배 쌀 도매가격은 1.7만円, D경영체의 소비자·실수요자 직판 가격(정미)은 1.8~1.9만円, G, H경영체의 소비자 직판 가격은 각각 1.7만円, 1.7~1.8만円으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D경영체는 외식산업 등 업무용 실수요자를 위한 직판도 하고 있으며, 판매가격은 소비자 직판과 같다.

상계 업자에게의 도매 판매를 실시하는 것은 E, G, H의 3개 경영체

18) 農水省 (2007) 「国内農業の体質強化に向けて」 2월 26일, 4페이지

이다. E경영체의 경우 JA보다 고가인 것이 그 이유이며, G경영체의 경우 술쌀이나 수확 시기가 늦어지는 직과 재배미를 취급해 주는 것도 요인이 되고 있다. H경영체의 경우 구성원 농가가 12월에 농가별 결산을 하고 확정신고를 해야하므로 JA의 위탁판매 대금 정산이 늦는 것도 이유가 되고 있다.

JA에의 위탁판매 비율이 높은 경영체는 홋카이도(北海道) A(95%), B(70%), 토호쿠(東北) C(100% (C.E.공사)), 미나미칸토(南関東) E경영체(50%)이며, 낮은 경영체는 킨키(近畿) G(1.5할), 키타칸토(北関東) D(가공미만), 킨키(近畿) H(없음)이다. A町 JA의 청취조사에 의하면 벼농사 재배규모가 20ha를 넘으면 JA로부터 멀어지지만, 100ha를 넘으면 자력으로 전량 판매를 하지 못하고 JA위탁판매로 회귀한다고 한다.

(5) 쌀값 하락과 경영의 안정성

지난번 조사와 비교해 이번 조사에서는 쌀 농가판매가격이 13,912円에서 12,972円으로 6.8%, 940円 하락했다('02~'06년, 60kg당, 農水省「쌀생산비통계」).

이에 따라, 조사 경영체의 판매단가도 하락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JA 위탁판매분이 하락하는 한편, 소비자직판분이나 도매시장분, 업무용 실수요자 직판분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JA에 95% 정도를 위탁하는 홋카이도의 A경영체는 1만 4천円 미만에서 1만 3천円정도에, JA에 70% 정도를 위탁하는 같은 지역의 B경영체는 1만 3천円 정도에서 1만 2천円 정도로 하락했지만, B경영체의 유기·직판분은 2만 2천円을 유지하고 있다. 전량을 C.E.공사(JA)에 위탁판매하는 토호쿠(東北) 지방의 C경영체의 경우, 관행재배 쌀($\Delta 6.8\%$)뿐만 아니라 저농약·저화학비료 쌀($\Delta 9.8\%$), 무농약·무화학비료 쌀($\Delta 5.5\%$)도 하락했다. 한편, 키타칸토(北関東) 지방의 D경영체의 소비자·실수요자 직판 쌀가격은 강세를 유지하며, 시장용과 소비자 직판 중심인 킨키(近畿) 지방의 G집락농장(集落農場)에서는 15%의 JA 위탁분을 포함하여 강세가

지속되는 경향을, 같은 지역의 H집락농장은 약세가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건담직파의 미나미칸토(南關東) 지방의 E경영체에서는 50%의 JA 위탁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앞절의 「(4) 생산품목과 판매채널」에서 설명한 대규모 벼농사 경영체의 일반적 경영특성인 고부가가치 쌀생산·소비자직판지향은, 쌀 가격의 장기적인 하락경향에서의 경영 안정책으로서도 기능하고 있다.

각 경영체의 경영한계가격(지불이자·지대를 포함한 생산비회수=물재비+가족노동비확보가격)은 B, G 두 경영체에서 상승한 것 외에는 지난번 조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홋카이도(北海道) B경영체의 경영한계가격은 5년 전에는 「반을 고가의 직판으로 판매하고, 나머지 JA 출하분은 7천円」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반을 고가의 직판으로 하고, JA 출하분은 9천円」이었으며, 총판매량(가중평균) 기준으로 JA 위탁판매분의 경영한계가격이 천円 상승했다. 또, 킨키(近畿) G집락농장에서는 10,740~11,504円으로 764円(7.1%) 상승했다(필자 시산치). 이러한 가격상승은 생산자재가격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가격이 상승한 B, G경영체로서도 현행 판매가격이 경영한계가격을 웃돌고 있어 조사 경영체 모두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요인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부가가치·소비자 직판지향의 생산·판매 전략이라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와 정반대의 경우로, 미나미칸토(南關東)의 E경영체는 생력화, 저비용 전략을 채택하고 있지만 E경영체의 경영한계가격이 1만 2천円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것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캘리포니아의 벼농사 경영의 물재비는 60kg당 1,512円이며, 일본의 전국 10ha 이상 농가에 대한 물재비 5,967円은 약 4배(표 1의 10~15ha 농가는 6,386円으로 4.2배) 수준에 있다.

(6) 정책 대응 상황

쌀 정책 등에 대한 대응 상황을 살펴보면, ① 7개 경영체 모두가 생산조정을 실시하고, ② 집하 원활화 대책에 참가하며, ③ 논경영소득 안정대책(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E경영체는 사

료용 벼 재배에 관해서 경축(耕畜)연대 논활용대책사업의 시범적인 면적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품종은 코시히카리(コシヒカリ)를 채용하고 있다.

‘생산조정’에 관해서는 초과 재배면적에 대한 반발, ‘논경영소득안정 대책’에 관해서는 제도가 이해하기 어렵고 각출금이 많은 것, 쌀값이 1만 2천~1만 3천円 수준에서는 10% 하락하여도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이 발동되기 어려운 홋카이도(北海道) 사정 등의 반발이 있었다. 한편, 교부금 등은 기본적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7) 영농 자재 조달 등

각 경영체의 영농자재 조달 상황을 살펴보면, 모든 경영체에서 JA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어 홋카이도(北海道) A, 토호쿠 C경영체에서는 100%, 키타칸토(北関東) D경영체에서는 90%, 홋카이도(北海道) B경영체에서는 60~70%로 높고, 그 다음에 킨키(近畿) H집락농장이 50%, 미나미칸토(南関東) E경영체가 30%, 킨키(近畿) G집락농장에서도 구매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의 부분은 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다. 대규모 농가와 JA와의 관계는 어느 쪽이든지 서로 양보할 필요성이 있어, A(町) JA에서는 비료, 농약 등에 대, 중, 소의 주문 단위로 단가에 차이를 두고 있다¹⁹⁾. 또, 키타칸토(北関東) D경영체는 대량주문 할인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합병전의 JA가 받고 있던 특혜를 합병 후의 JA로 계승된 것이다.

킨키(近畿) G, H집락농장 구성원 각 호가 조합원이며, A이하 5개의 조사경영체의 후계자(担い手)가 모두 직접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한편, 킨키 G, H 집락농장은 생산조합 자신도 JA에 출자하고 있다.

하지만 영농·경영지도면에서 JA가 자주 방문하고 있는 곳은 키타칸토(北関東)의 D경영체에만 해당된다.

19) A마치 JA에서의 청취조사에 의함

(8) 향후의 방향

조사 경영체의 향후의 방향은 앞의 「(2) 경영 규모의 확대」에서 말한 최근 5년간의 동향을 연장한 것이다. 적극적인 키타칸토(北關東)의 D 경영체가 지속적인 규모 확대(09년도를 향해서 +5 ha)나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의 2차 가공(모치, 팔찰밥 등)으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과 킨키(近畿) G, H 집락 농장이 논경영소득안정대책의 집락영농 요건 구비의 필요성으로 2~3년 이내에 법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여타 4개 경영체는 현상 유지(A, B, C)로부터 축소 경향을 포함(E)하고 있다. 반복이 되지만, 거기에는 쌀 가격의 장기 하락 추세라고 하는 환경조건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5. 시사점 및 과제

통계와 임의의 7개 시정촌, 7개 경영체에 대한 조사에서 공통되는 과제를 추출해도 일반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소수의 조사대상 중에서도 분명해진 사항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첫번째로 생산기반·기술과 코스트 경쟁력의 문제이다. 조사 경영체의 포장 조건을 보면, 모든 포장이 1ha 이상의 대구획으로 정비된 것은 이주시에 정비된 토호쿠(東北) C 경영체만이며, 7.5ha 포장을 가지는 미나미칸토(南關東) E 경영체의 경우에도 1a 구획으로부터 7.5ha까지 약 80구획의 포장을 가지고 있다. 조사 경영체 전체의 포장 구획은 대체로 30~60a 구획이다. 그것을 개선하려면, 분산착포(分散錯圃) 해소와 포장 정비가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홋카이도(北海道) C 경영체의 경우 강풍에 의해 담수가 한쪽으로 밀려들기 때문에 1ha 구획의 포장은 어렵고, 킨키(近畿) H 경영체의 포장에도 경사가 있어 대구획 포장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분산착포(分散錯圃)는 면적 집적의 추진에 의해서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생산 기반인 포장 조건에 대해 이미 미국에 대한 코스트 경쟁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생산 코스트의 절감을 위해서는 건답 직파에 의한 생력 효과가 높지만, 건답 직파에 적절한 습전이 아닌 지대는 한정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생산기술의 면에서도 미국산 쌀과의 코스트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두번째로 현행의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경영 한계 쌀 가격은 통계는 물론 이번 조사에서도 1.0만円~1.3만円 수준으로 나타났다. 만일 쌀 수입관세 철폐 후의 쌀 가격을 8천円²⁰⁾이라고 하면, 경영 한계 쌀 가격과의 차액을 보조할 경우 60kg당 2천円~5천원의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세번째는 고부가가치미 지향이 가져오는 일반미·저가격미 수입증가의 염려이다. 조사 경영체 중 저비용 전략을 선택한 E 경영체 이외의 6개 경영체는 고부가가치 쌀을 생산하거나 소비자직판을 통하여 소비자가격으로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경영 지향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조직법인의 쌀 판매가격은 통계상으로도 농가 평균치보다 1천円 이상 높다.

향후, 쌀의 관세율이 감축되거나 국영무역을 제한하는 등의 자유화가 진행되어 쌀 가격이 더욱 하락하면, 대규모 벼농사 경영체의 상당수는 경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 이러한 추세를 한층 강화할 것이다. 일본 벼농사의 대부분이 대규모화했다고 가정하면, 소비의 대중을 차지하는 관행 재배의 일반미의 공급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 수요가 수입쌀로 대체될 수도 있다.(동시에 고부가 가치미의 가격은 하락하여 대규모 벼농사 농가 자체의 경영도 불안정해진다). 또한, 외식·중식 산업의 저가미 수요는 관세의 감축, 수입 자유화 진전으로 수입쌀에 점유될 것이다.

일반미나 저가미의 공급 주체는 중소 규모 농가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이러한 농가의 경영 안정화도 중요해진다. 논경영소득안정대

20) 중국으로부터의 멍쌀미 SBS 수입 평균 가격의 최고·최저년의 평균 8,610円(95~07년, 정미 60 kg 정답)을 현미 환산하면 7,800円이 된다 (농수성 「제1회미 유통 시스템 검토회에 있어서의 위원 요구 자료」로부터 산출).

책에서는 집락영농이 정책대상자로서 인정되어 대책 2년째인 2008년 산에 5,655개 단체, 쌀의 경우 11.2만ha가 가입 신청했다(2008년 8월, 농수성). 그러나, 주식용 쌀 생산면적 160만ha(2008년, 농수성)에서 보면 그 비율은 매우 작다. 향후의 일본의 벼농사 농업의 귀추는 개별 경영체와 함께 집락영농의 조성 과 육성 여하에 달려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安藤光義（2008）「水田農業再編と集落営農」『農業経済研究』 第80卷
第2号
- 石谷孝佑編（2002）『米の事典-稲作からゲノムまで』 幸書房
- 石原健二（2008）『農業政策の終焉と地方自治体の役割』 農山漁村文化
協会
- 志賀永一（2008）「北海道農業の生産構造変化とグローバル化に向けた
対応・課題」『農業経済研究』 第80卷第2号
- 清水徹朗（2004）「稲作農業の実態と今後の見通し」『農林金融』 2月号
- 生源寺眞一（2008）『農業再建真価問われる日本の農政』, 岩波書店
- 須田敏彦（2003）「大規模稲作経営の実態と効率性向上の条件」『農林金
融』 11月号
- 平林光幸（2007）「水田経営法人の存立条件と経営支援の必要性」農政調
査時報春（第557号）
- 藤野信之（2004）「外食・中食産業の米需要」『農林金融』 2月号
- 藤野信之（2005）「米流通制度改革と米価の動向」『農林金融』 3月号
- 山浦陽一（2007）「集落営農の増加と展開方向」, 日本農業研究所『農業
研究』 第20号
- 吉田俊幸（2003）『米政策の転換と農協・生産者』 農山漁村文化協会
- 若林剛志（2008）「農業センサスにみる稲作経営の変化」『農林金融』 10
月号